

이범호 감독, 7명 줄부상 이탈에 “급할수록 돌아가겠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다치는 경향이 있는데 선수 탓 할 수 없어
좌측 주관절 골극근 염좌 진단 받은 이의리 3주 정도 쉬고 등판



“얼마나 간절했으면...”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시즌 극과극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극적인 승리들이 쌓이면서 1위 자리에도 올랐지만 벌써 7명의 부상 선수가 발생했다. 나성범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시작하지도 못했고, 내야수 황대인과 투수 임기영이 연달아 재활군이 됐다. 지난 7일에는 박찬호가 사구 여파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10일에는 동시에 3명의 선수가 전력에서 이탈했다.

박찬호를 대신해 유격수 임무를 맡았던 박민이 수비 도중 무릎을 다쳤고, 부상에서 벗어나 퓨처스 리그에서 실전을 재개했던 또 다른 유격수 자원 윤도현이 중수골 골절 부상을 입었다. 선발 이의리는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껴 등판 도중 마운드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범호 감독은 11일 LG전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

에서 “내 복이다. 너무 열심히 하려다 다치는 경향이 있는데, 선수 탓을 할 수 없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냐”며 선수들의 부상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불행 중 다행은 박민과 이의리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범호 감독은 “민이가 그걸 잡으려고 가다가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2~3주 지나면 온다고 한다”며 홍중표의 콜업을 알렸다.

홍중표는 이범호 감독이 “경기를 할 줄 아는 선수”로 꼽는 자원이다.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기’가 있는 선수인 데다 최근 퓨처스 리그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던 만큼 이범호 감독은 콜업과 함께 홍중표를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의리도 좌측 주관절 골극근 염좌 진단을 받으면서 큰 부상은 피했다.

이범호 감독은 “아픈 상태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공이 빠진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빨리 판단을 잘한 것 같다”며 “염좌라서 한 번 정도 쉬고 3주 정도 생각하고 스케줄을 맞추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주 정도의 스케줄을 생각했던 이범호 감독은

‘급할수록 천천히’의 마음으로 이의리의 복귀를 준비시킬 생각이다.

이범호 감독은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팀 상황은 급하지만 워낙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선수다. 가지고 있는 수명을 단축 시키면 안 된다”며 차분하게 이의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의리의 빈자리를 채울 후보로는 김건국, 김사윤, 황동하가 있다.

김건국은 이의리가 부상으로 내려간 2회 1사 만루 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돼 병살타로 급한 불을 끄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좌완 김사윤은 엔트리에서 말소된 이의리를 대신해 2군 추첨을 받아 콜업한 자원. 황동하는 올 시즌 대체 선발로 준비시킨 선수다.

이범호 감독은 “다음 이의리 팀에는 건국이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간에 사윤이를 투입하거나 동하를 콜업하는 등 이의리가 들어오는 날짜별로 체크해서 넣겠다. 건국이가 잘 던져준다고 하면 로테이션을 바꿀 이유는 없다”며 김건국을 중심으로 선발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건강하게 돌아오겠다”

박찬호 빈자리 선발 라인업 기회

3경기만에 부상 이탈...2~3주 재활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10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KIA 타이거즈 내야수 박민이 동료들과 팬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했다.

박민은 박찬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유격수 자리에서 기회를 얻었다. 7일 삼성전에 이어 9~10일에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던 박민의 어필 무대는 부상으로 일찍 끝이 났다.

3루 파울플레이를 잡기 위해 공을 쫓던 박민은 관중석에 몸을 부딪쳤고, 왼쪽 무릎 내측 광근 부분 손상 부상을 입었다.

큰 충동이 있었던 만큼 박민의 부상 상황을 지켜봤던 이들은 마음을 졸였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2~3주 정도 재활을 해야 한다.

재활-치료를 위해 11일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박민은 “어제는 목발 짚고 다녔는데 발 디딜 정도로 괜찮아졌다”며 몸상태를 전했다.



열정이 넘쳤던 부상이었던 만큼 아쉬움은 크다. 박민은 “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싶어서 무리한 플레이를 했던 것 같다. 많이 후회하고 있다. 공에 너무 집착했다. 앞선 경기에서 실수도 있어서 더 뭐라도 하려고 했다. 기회라는 생각이 있었다. 남들도 다 기회라고 하고, 오래갈 기회는 아니지만

해보자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며 “팀이 잘해야 되고, 우승도 해야 한다. 스타팅으로 나가고 있었으니까 폐가 되지 말자는 생각이 컸다. 안 다치는 게 더 폐가 안 났을 것 같은데 다쳐서 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다음부터는 주변을 살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을 걱정하게 해서 마음이 좋지 못한 박민, 특히 서건창 선배에게 미안함이 크다. 서건창은 지난 휴식일에 내야수들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의기투합해 새로운 마음으로 해보자고 준비한 자리였다.

후배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던 서건창은 10일 경기가 끝난 뒤 박민을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박민은 “건창 선배님이 저를 생각해서 회식도 마련해주셨는데 바로 다쳐버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 쳐주셔서 팀이 이기게 돼서 정말 감사했다”며 “건창 선배님 인터뷰 봤는데 죄송하고 경기 중인데 걱정 끼쳐서 죄송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만큼 빨리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민정 1위 결승선 통과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부 500m 결승에서 최민정(빨간 모자)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황대현 태극마크 반납 위기

세계선수권 ‘팀킬 논란’ 이어

국가대표 2차 선발전 9위 밀려

올 시즌 ‘팀킬 논란’으로 비판받은 쇼트트랙 황대현(강원도청)이 태극마크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황대현은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1500m 결승에서 5위, 남자 500m 결승에서 실격 처리되면서 랭킹 포인트 8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1차 선발전에서 5점을 얻었던 황대현은 총점 13점으로 전체 9위까지 밀렸다. 2024-2025시즌 국제대회 개인전은 선발전 1~3위 안에 들어야 우선 출전 자격을 얻는다.

황대현은 3위 김건우(스포츠포토·68점)에게 55점 차로 밀리고 있다. 12일 열리는 남자 1000m에서 우승하더라도 34점을 추가하는 데 그쳐 3위로 올라설 수 없는 처지다.

한때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으로 활동하던 황대현은 올 시즌 오해를 살만한 잇따른 거친 반칙으로 무너졌다.

특히 ‘세계 최강’ 박지원(서울시청)에게 자주 반칙을 범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대현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1000m 2차 레이스 결

승에서 앞서 달리던 박지원을 뒤에서 밀치는 심한 반칙을 범해 엘코트(YC)를 부여받고 모든 포인트가 몰수됐다.

국가대표 자동선발권이 걸린 2024 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남자 1500m와 남자 1000m 결승에서 연이어 박지원을 넘어뜨렸다. 황대현은 두 종목 모두 페널티를 받았다.

한 시즌에 세 번씩이나 ‘팀킬 논란’을 빚자 팬들은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황대현은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많은 팬은 올림픽 경쟁자인 박지원을 겨냥해 일부러 반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일각에선 2019년 황대현이 당시 한국 쇼트트랙 에이스로 활약하던 린샤오쥘(한국명 임효준)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해 재조명하기도 했다. 당시 린샤오쥘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계 여파로 한국 생활을 접고 중국으로 귀화했다.

황대현의 반칙과 거친 플레이는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전했다. 황대현은 지난 6일 2024-2025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남자 500m 준결승에서 박지원과 충돌했다.

황대현은 이튿날 남자 1,000m 2차 예선에서는 박노원(화성시청)과 충돌해 실격 처리됐다. 11일에 열린 2차 선발전 남자 500m 결승에서도 박장혁(스포츠포토)에게 반칙을 범해 페널티를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대회 14일 개막

21일까지 진월 국제테니스장서

30개국 선수 200여명 참여

권순우, 홍성찬 등 국가대표 선수들과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2024 광주 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광주 진월 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8만2000달러 규모로 펼쳐지며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1200달러의 상금이, 복식 1위에게는 4665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은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놓고 치열한 경기를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테니스 남자 국가대표인 홍성찬(ATP 단식 201위), 정윤성(ATP 단식 387위), 이재문(ATP 단식 506위), 남지성(ATP 단식 701위), 권순우(ATP 단식 645위), 송민규(ATP 복식 463위)가 출전한다.

해외 선수로는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맥스 퍼셀(호주·ATP 단식 68위)과 덕워스 제임스(호주·ATP 단식 109위), 버타넬 오토(핀란드·ATP 단식 127위) 등 테니스 강자들이 나선다. 특히 지난해 광주오픈 대회 단식에서 준우승에 머문 맥스 퍼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2019년 대회 단식 우승자인 제이슨 정(대만·ATP 단식 256위)도 이번 대회에서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대회는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 복식



국가대표 남지성(오른쪽)이 지난해 5월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린 2023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복식 경기를 마친 뒤 상대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복식 결승전은 20일, 단식 결승전은 대회 마지막 날인 21일에 진행된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오픈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광주시테니스협회는 대회 기간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20일엔 ‘여성동호인대회’가, 21일에는 MZ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가 열린다.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단식 준결승과 복식 결승전이 열리는 20일 테니스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되고, 단식 결승전이 열리는 21일에는 페이스

·핸드 페인팅, 에코백 체험, 물피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공유마켓, 공유놀이터 등이 마련된 ‘올림픽광장 공유장터’가 펼쳐진다.

임상모 광주테니스협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광주오픈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네이버 스포츠와 유튜브 KAT TV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